

# ‘밑줄. 긋는. 남자’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단다!



조주희 | 서울 대광고등학교 교사

주현이의 대답이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왜냐?” 죽히 열 번도 더 물었다. 조퇴할 이유를 주현이가 다시 설명한다. 납득이 안 된다. 다시 묻고 다시 대답하기를 몇 번. 결국 주현이는 나의 이해를 포기했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가버렸다. 이걸 무단 조퇴다. 한참을 고민했다. 왜 서로 이해할 수 없었을까. 이해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이 쉽지, 힘든 일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시험에서 “가나다”가 답인데, “강나다”라고 써 놓고 부분점수를 달란다. 두 글자는 맞지 않았냐고 한다. 시험이니까 예민할 수 있다. 허나, 분명 지금 교과서 180페이지를 펼치라고 찌렁찌렁 외쳤음에도 이곳저곳에서 “어디요?” 5번도 넘게 물을 땀, 이해는 고역이 된다. 이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는 건 아닌 듯싶다. 선량한(?) 교사이고 싶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할 때, 숙제를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할 때, 아프다고 앞드려 있겠다고 할 때마다 그러라고 선뜻 응해 주고 싶다. “왜 쉬는 시간에 뭐 했냐, 제출기간은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단다, 정신력으로 버텨라”라며 토 달고 싶지 않다. 독하게 일으키고 더하라고 떠밀고 싶지 않다. 학생이 나를 속일지라도(?) 무심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지 않은가.

이해되지 않으면,  
‘밑줄 긋는 남자’가 되자

수업 시간에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얘기한다.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근대 요 남학생들은 반응이 영 시큰둥이다. 몇 년 전 같은 이야기를 여학생에게 했을 때만 여간 다르다. 다시 해달라며 줄랐던 여학생과 똥한 표정의 남학생. 하긴 이들의 차이는 하나 둘이 아니다. 필기하는 태도부터 판이하게 다르다. 필기할 게 생기면 여학생들은 2,000원짜리 펜이 수북한 필통부터 집어 든다. 그 중에서 색을 고르고, 자를 대고 똑바로 밑줄을 긋는다. 정성 그 자체다. 혹시라도 설명하다 내가 글자를 잘못 쓰면, 일제히 반 전체에 화이트를 흔드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화이트가 마를 시간도 충분히 줘야 한다. 나도 꽤 여러 달에 걸쳐서야 익숙해졌다. 그런데, 이젠 남학생이다. 남학생 멧은 필통부터 없다. 필기하려면, 교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낸다. 샤프 아니면 검정 펜, 딱 하나다. 자는 턱도 없다. 손가는 대로 긋는다. 봐도 뭐라고 썼는지 모른다. 화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다. 틀리면 짹 짹 긋고 다시 쓴다. 이렇게 학생이라도 남학생, 여학생이 다르다. 개개인이 다르고, 때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니, 사람을 이해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듯싶다.

《밑줄 긋는 남자》는 이해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25살 콩스탕스는 도서관에 간다. 여러 책을 빌렸지만, 끌리는 책이 없다. 잘못 빌렸다, 하는 순간, 누군가 밑줄을 그어 놓은 글자를 발견한다.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노름꾼’, 좋은 책입니다. 그걸 당신에게 권합니다.” 이때부터 콩스탕스는 이 밑줄 긋는 남자가 알려주는 책을 골라 읽으며, 그 남자를 찾기로 결심한다. 숨바꼭질 같다. 찾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다. 과연 밑줄 긋는 남자는 누구였을까? 아니 정말 있기는 있었을까?

《밑줄 긋는 남자》는 심오하지 않다. 연애 소설, 추리 소설의 맛이 체대로다. 담백하고, 재미가 쏠쏠하다. 우울한 날에 읽어도 금방 배시시 웃음이 난다. 더불어, 책 속에 소개되는 실제 책들도 조금씩 맛볼 수 있다. 《밑줄 긋는 남자》에는 한 권을 읽어도 여러 책을 동시에 읽는 재미가 있다. 밑줄은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다.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그어 놓은 밑줄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듯, 《밀줄 긋는 남자》는 다른 이를 이해하는 길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주현이가 다음 날 왔다. 무단 조퇴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답변이 너무 엉성하다. 대답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 말 속에 밀줄을 그어본다. 그리고 수많은 대안을 떠올린다. '데리고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 요즘 고민이 있었나? 아니다. 그래도 혼내야 하지 않나?' 고민 끝에 편지를 건넸다. 답장을 써오라고 했다. 주현이가 어느 곳에서 밀줄을 그으며 읽을까? 이틀이 지나서야 답장을 가져왔다. "열심히 해 볼랍니다." 이해는 서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서로를 이해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이해하려면 알아야 한다. 알면 이해한다.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에서는 "알면 사랑한다"고 한발 앞서간다.

이 책은 동물학자 최재천의 글모음집이다. 글제목만 봐도 읽고 싶다. '왜 연상의 여인인가, 흡혈 박쥐의 현혈, 공룡의 피는 따뜻했

다. 메뚜기가 조금만 슬기롭다면, 동물도 수학을 할까, 동물도 거짓말을 한다, 동물도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등등.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에 재미와 더불어 공감이가 가는 책이다. 하나만 소개해 본다. 죽음을 애도하는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아름답다고 작자는 말한다. "만일 일단 태어난 박테리아 중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불과 36시간 만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온 지구의 표면을 덮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면 우리의 키를 넘길 것이고, 몇 달 후면 지구는 저 우주를 향해 빛의 속도로 팽창해 나갈 것이다."(69쪽 '동물도 죽음을 애도한다' 중)

세상이 더욱 각박해진다. 뉴스 보기가 겁날 지경이다. 여기서 작자는 가장 잔인한 동물을 묻는다. 주관식은 너무 반대하니, 객관식으로 다시 물으면, ① 토끼 ② 사자 ③ 뱀 ④ 벌 중의 하나다. 생각할 동안, 벌 얘기를 잠시 해본다. 벌은 춤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곤충이다. 직선과 수직의 각도에 따라 꿀이 있는 꽃의 위치를 알린다. 독일 연구진은 '벌과 인간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라는 장난스런 질문을 진짜로 실천한다. 작은 꿀벌 로봇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정해서 꿀벌 앞에서 춤을 추게 했다. 그 다음 미리 춤으로 알려준 장소에 가서 기다렸다. 결과는? 성공이다. 정말 그 꿀벌들은 그곳으로 왔다. 이쯤 되면, 벌과 인간은 서로 의사소통을 한 셈이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해 본다. 답은? 바로 그 벌이다. 그 중 말벌이다. 말벌은 송충이나 메뚜기를 잡아 땅에 묻고는 그 몸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그 살을 먹으며 성장한다. 진짜 잔인한 건, 어미 말벌이 송충이나 메뚜기를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신경만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신선한(?) 고기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심해도 정말 심하다. 성실의 상징인 벌이 이런 면이 있다니, 알기 전에 모른다. 그래서 알아간다는 건, 두렵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가. 새삼 책의 제목이 맘에 와 닿는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해엔, 이게 정답이다. **한글**

이 글을 쓴 조주희 선생님은 \_\_\_\_\_

현재 대광고등학교 국어교사이며 문학반을 담당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대학교와 대학원 시절 CBS 다큐멘터리 작가, 리포터, 《여성동아》 자유기고가로 활동한 바 있다.



《밀줄 긋는 남자》 카롤린 봉그랑 지음 | 이세욱 옮김 | 열린책들 | 184쪽 | 값 7,500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최재천 지음 | 효형출판 | 267쪽 | 값 8,500원